



민나온이 11일 열린 맥도널드 챔피언십 최 종라운드 1번홀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민나온 3위

LPGA 챔피언십 최종

만 19세가 채 되지 않은 민나온(19)의 최 연소 LPGA 메이저대회 챔피언의 꿈은 '코 리안 킬러'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게 안 타깝게 꺾였다.

페테르센은 11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크의 볼록골프장(파72·6천 59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정상에 올랐다.

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 를 친 민나온은 5언더파 67타를 뽑아낸 카리 웹(호주)에 준우승까지 내주고 3위(12언더 파 276타)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민나온은 3위 상급 12만9천880달러를 받아 상급랭킹 20위권으로 도약하면서 내년 투어 카드를 일찌감치 확보했다.

축구지도자들 23%

“심판 로비한적 있다”

한국축구지도자협 설문

일선 축구지도자·팀 관계자들은 심판들의 경기운영에 대해 불과 14.9%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는 심판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축구지도자협의회는 11일 '축구 심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문에 응한 지도자와 팀 관계자 33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6명(49.6%)이 심판의 경기운영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고작 5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심판에게 로비를 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무려 23.2%(78명)가 '있다'고 답했다.

프리미어리거 4인방, 청소년 축구대표팀 방문·격려

“세계대회 두려움을 버려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거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선수 4인방이 세계 대회를 앞둔 청소년 대표팀 후배들에게 두려움 없는 플레이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30·토트넘), 설기현(28·레딩), 이동국(28·미들즈브러)은 11일 낮 서대문구 흥동 동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20세 이하 및 17세 이하 청소년대표팀 격려 오찬에 자리를 함께 했다.

“자신의 기량 충분히 발휘해야”

정동준 축구협회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이들은 행사 시작 전 인터뷰에서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는 후배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경기에 나선다면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은 다음달 1일

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U-20)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박경훈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7세 이하 대표팀은 8월18일부터 9월9일까지 국내 8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소년(U-17)월드컵에 출전한다.

만형 이영표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큰 대회를 마친 뒤 ‘별 것 아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후회를 하곤 했다. 강팀과 경기를 하기 전부터 주눅이 들어 아쉬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주위에서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어린 선수들은 세계대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얼마나 보여주는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적이 연연하지 않고 좋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알아보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국은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한다”며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으며, 설기현도 “직접 후배들을 보니 자신감이 차 있어 결과가 좋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수술 및 부상으로 재활 중인 이들은 근황도 전했다.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기대”

이영표는 “재활 훈련을 잘하고 있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아시안컵 출전 여부는 소속팀과 핏 베어백 대표팀 감독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표팀 복귀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여전히 수술한 오른발을 땅에 짚지 못하고 목발에 의지한 박지성은 “집에서 재활에 열중하고 있다. 영국에 언제 복귀하는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귀국했을 때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동국 등 프리미어리거 4인방이 11일 흥동 동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월드컵 선수단 출정식에서 청소년대표팀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세 이하는 오는 30일부터 캐나다에서, 17세 이하는 8월 한국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무릎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레딩FC)에 이어 이동국마저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대표팀의 타격

이동국 “통증때문에 아시안컵 출전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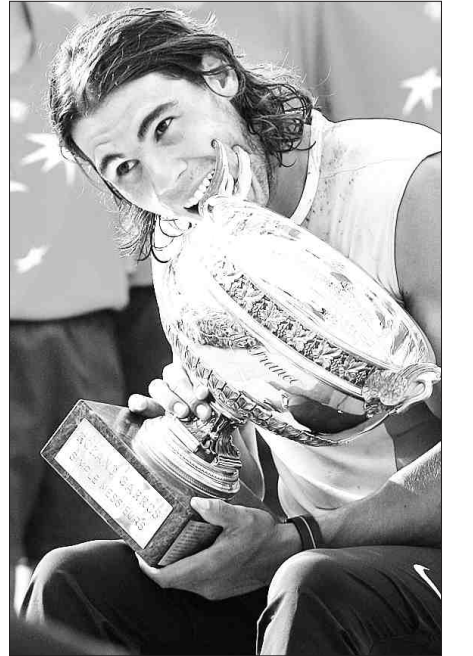
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동국은 11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서대문구 흥동 동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마련한 20세 이하 및 17세 이하 청소년대표팀 격

려 오찬에 참석한 뒤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은 상당히 중요한 대회다. 개인적으로도 뛰고 싶다. 하지만 통증을 참고 뛰려면 대표팀에도 손해다. 다음 시즌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통증을 안고 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동국은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겨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은 안 된다고 해 통증을 없애는 치료 위주로 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달이 11일 열린 프랑스오픈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페테러를 꺾은 뒤 우승 트로피를 입에 물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달 3연패

프랑스오픈테니스 男단식

클레이코트의 황태자 라파엘 나달(세계랭킹 2위·스페인)이 ‘황제’ 로저 페테러(1위·스위스)를 또 다시 꺾고 프랑스오픈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3연패를 달성했다.

나달은 11일 새벽 파리 외곽 톨랑가로 코트에서 끝난 결승전에서 페테러를 3-1(6-3 4-6 6-3 6-4)로 꺾고 3년 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다. 그는 4대 메이저대회 가운데 프랑스 오픈만 세 차례나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클레이코트 감각의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프랑스오픈 3연패는 지난 1978~1981년 4연패를 달성한 비온 보리(스웨덴) 이후 26년 만이다.

2005년 이 대회 첫 출전과 함께 우승을 일궈냈던 나달은 톨랑 가로 코트에서만 21연승 행진을 내달렸다.

나달은 또 페테러와 상대 전적에서도 8승 4패로 우위를 지켰고 특히 클레이코트에서는 6승1패로 압도적인 승률을 이어갔다.

반면 개인 통산 11번째 우승 및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도전했던 페테러는 나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분무로 삼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2일(화)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12:30·KBSN Sports)

▲메이저리그<시애틀-블루팬츠>(07:55·Xports), <뉴욕M-LA다저스>(11:00·Xports)

▲프로야구<삼성-KIA>(18:00·MBC ESPN), <LG-현대>(18:00·KBSN Sports), <두산-롯데>(18:20·SBS스포츠)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할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 본사 시판부(062)222-8111	아미지테라피 장동 구도동부맛있는 보성초치킨2층 기합네치,삼부일,이유로베다,특수경력,잡티 여드름,피부재활,광주,전남지역 제인점 수시모집 ☎(062)232-5337	박명숙미용실 대인동 구신기하 국회의원사무실앞 이룸다움과 우아함을 전달하는 미용실 원장 박명숙 ☎(062)232-5613	허내과의원 금남로2가 2-4번지 2층 당뇨병,갑상선질환,내분비내과,진료전문 대표 이재근 ☎(062)222-7737	형제광택사 송하동 송암공인도기도림 LPG총선5곳은편 광역,코팅,3M프로텍트,이러,액플로,시공전문 대표 임은애 ☎(062)674-3479	금원정 도산동 구광산경찰서뒷편 도로변 보신탕,생태탕,수족,전용,단체예약,온천형 대표 임은애 ☎(062)944-2332	약산암(여이지점소원) 지산동 범원사거리에서 농정다리방향 시주,관상,택일,묘지,병진 보살 이경자 ☎(062)222-7169	
갯두리해물찜 목포 신흥동 하당 노동부뒷편 해물 요리 전문점 대표 이현숙 ☎(061)287-4600	나라종합건설(주) 월산동 신우@입구 7번24시편의점2층 각종 토목,건축,측량업 공사전문업체 ☎(062)368-0471	(주)현대공사디자인 용산동 남초등학교앞은편 육교옆 지붕재공,시공,집수리,주택수리,개보수 지붕재,지붕재,지붕재 ☎(062)223-2479	오성모텔 북동 롯데백화점 건너 최신시설연비 ☎(062)531-3322	완도항 주월동 1270-14 완도항 식당에서는 자연산만을 취급합니다 대표 김영식 ☎(062)673-8096	동규치킨양림점 양림동 기동병원길 광주은행앞은편사거리 후라이드치킨,양념통닭,생맥주 전화 주문시 신속배달 ☎(062)676-9288	샘터급탕 운수동 광산경찰서뒷편 내장국밥,콩나물국밥,순대국밥,모듬국밥 머리고수육,새끼보,공주치킨,전골,공작볶음 ☎(062)942-6331	은혜간병소개소 학동 시외버스정류장 건너편 간병인,소식실,하식분 가정에서도 간병해 드립니다!! ☎(062)236-1050
갯바위낙시 목포 상동 평화광장 우미파로5차일 갈치낙시,출조전문 저렴한 가격으로 상식을 환영합니다 ☎(061)285-9522	명문부동산 운암동 서강정보대정문 건너 APT, 주택, 상가, 토지 매매 및 임대 공 경매 투자상담 ☎(062)511-4549	동아공인중개사 소태동 남초등학교후문구 육교옆 APT, 주택, 토지, 임야 경매및공매, 입찰대리,공수지리 상담전문 ☎(062)432-7357	해남땅끝찜집 주월동 무등시정입구 하이마트옆 포장주문배달 대표 유상필 ☎(062)653-3451	굿모닝부동산사무소 용봉동 전철우당역 건너편3층 토지개발,이동,상가,임대,경매,공매전문 대표 임승준 ☎(062)515-4585	사랑채 매곡동 빅마트앞은편 추어탕, 보신탕전문 ☎(062)573-2229	터피의휴게소 오치동 오치사거리에서 북부소방서사 저렴한 술과인주 대표 김정미 ☎(010)4620-2910	주흥학사역술원 중심사입구, 피터의식산업 건너편 신수,시주,공합,택일,직명 대표 이정자 ☎(062)227-3698
각종건강동우회 방림동 라인하이초건너편 한빛교회옆 홍삼, 상향비섯, 장뇌삼, 벌꿀 '9년근홍삼물세트' 도 소매전문 ☎(062)433-3787	수일통닭주월 진월점 진월동 광주대학교입구 30년 전통의 명가 예약,단체주문환영(후라이드,양념치킨) ☎(062)674-8292	만수근로자대기소 송하동 효천역교육길 2층 건축폐기물처리업체,철거작업,창호공사 남,여 근로자 수시모집 ☎(062)675-0780	한백년결혼상담소 북동 천주교건너편 국제결혼,초혼,재혼 전문업체 상담을 환영합니다 ☎(062)527-6672	솔플라워 농성동 농성성당입구 냄세잡는꽃 세치중후군,새집중후군 공기정화,음이온발생 ☎(062)369-0939	낙지생각 학동 배고뽀리리 시내일방도로 낙지전문점 대표문의(단체가능) 대표 윤혜승 ☎(062)233-5756	부영통닭과편향만두 용산동 소태역옆 편향,왕만두,고기만두,김치만두 2,500원 후라이드+편향만두(10개)=13천원,후라이드(11개) ☎(062)233-5154	최고루두암점 두암동 무등파리차와 위메이 사이 창평국밥 광주의 대표주자,최고를 자랑하는 최고루 최고재료,최고주방장,전화주문시 신속배달 ☎(062)1577-8552